

임신아내·딸 살해

93.1.10

“능력없다” 무시발언 격분

모녀 암매장 20대 영장

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임신 9개월 된 아내와 2살 난 딸을 목졸라 살해 한 뒤 암매장한 이복수(28·회사원·성북구 종암1동 54)씨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10시께 구로구 구로5동 지하철 신도립역 부근에서 아내 김막례(30)씨가 “남자가 능력이 없다” “당신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”고 말하는 데 격분해 김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목졸라 숨지게

하고 이어 김씨가 업고 있던 딸 수정(2)양까지 목졸라 죽인 뒤 살해장소에서 1백여m 떨어진 인근 공장장 웅덩이에 암매장했다는 것이다.

이씨는 경찰조사에서 87년 10월 동대문구 신설동 ㄷ중국집에서 만나 알게 된 부인 김씨와 결혼했으나 대졸인 자신과 국졸인 부인과의 학력차, 생활고 등으로 잦은 불화를 빚어오다 사건 당일 구로구 시흥동에 셋방을 얻고 돌아오던 중 부인이 자신을 심하게 무시하는 데 격분해 순간적으로 이런 변태를 저지렀다고 말했다.